#1 진입

주인공(이름)은 서랍 속 모서리에 박혀 있는 오래된 돈들을 발견한다.

**(카메라 가운데 ‘돈’을 클로즈업해준다.)**서랍 속에서 동전 몇 개와 지폐 몇 장을 꺼낸다.

자세히 보니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돈들이다.

주인공은 돈을 확인하기 위해 녹이 슨 동전의 외부(100원 동전)를 소매로 쓱쓱 문질러 본다.

**(주변의 빛이 점점 어두워지며 카메라도 점점 어두워진다.)**

**(눈꺼풀을 떴다가 감았다 하니 흐렸던 시점이 돌아온다.)**

#2 낯선 장소의 그 사람

눈을 떠보니 알 수 없는 장소에 주변에서는 말발굽 소리와 화살 쏘는 소리가 들려온다.

소리가 들리는 쪽을 쳐다보니 휘날리는 군기와 천막들 사이로 ‘훈련원’이라는 팻말을 볼 수 있었다.

그리고 자연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다.

안에는 파란색 의복에 말 위에서 활시위를 당기고 있는 사람들

검정 의복을 입고 말 위에서 긴 창을 과녁을 향해 창을 찌르는 사람들과

서서 활시위를 당기는 사람 등 여러 사람이 시험을 보는 것 같았다.

그 순간 갑자기 쿵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이목이 한곳으로 쏠린다.

그곳에는 한 성인 남자가 말에서 떨어진 채로 다리를 쥐어 잡고 있었다.

그는 주변에 버드나무 줄기로 다리를 동여매고는 다시 한 번 놀란 말의 고삐를 쥐어 잡고 시험을 재개하였다.

그리고 시험이 끝나는 지점으로 도착해 말에서 내려왔다.

그는 관중 속에 있는 **주인공** 앞으로 아픈 다리를 끌면서 지나간다.

**이순신(무기력한 목소리로): 이번 시험은 글렀군… …**

아픈 다리를 끌며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니 씁쓸한 심정이 느껴진다.

그런 그의 모습을 바라보던 중 카메라가 다시 한 번 검정 화면으로 어두워진다.

#3

역사적 시대적 사실을 배경으로

무과시험장 주변에 휘날리는 군기와 천막들, 활 쏘는 모습, 표적의 모양 등을 생생히 묘사하고 있어 역사적 자료 가치가 특별히 더 높습니다. 또 이 그림은 기록화의 특징

백사장이 넓게 뻗어 있으며 바다위에는 선박에 2층 판옥선 배들이 바다위에 떠다니고 있었다.



일본은 주로 수송선 330척, 빠르기만 한 배

조선은 화포가 달린 판옥선2층 (20개 이상의 화포) 이 판옥선에 등껍질을 쌓아 왜구가 타지 못하도록 만들었으며 머리쪽에 포를 달아